

여명

2005년 겨울호 (통권 제12호)

여명가파의 3대목표

-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
- 가족기능의 회복
- 노인복지 정책 발전

• 발행처: 여명가정봉사원파견센터 • 발행인: 도성 숙 • 편집인: 이 지 영
• 전화 (063) 224-5673 • FAX (063) 224-6896 • 560-860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579-5 • E-mail: careym@hanmail.net



여명가정봉사원파견센터는

독거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우애서비스, 가사서비스, 개인서비스 및 기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방문간호 서비스와 운동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 1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 2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 3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 4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 5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 6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 7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 8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2005년 겨울호 (통권 제12호)

· O · · T · · N · · S

| | |
|--------------------|-------|
| 여는 글 | 2 |
| 시편121편 | |
| 목 차 | 3 |
| 봉사자의 삶 | 4~5 |
| 모든 만남을 기적으로/ 김영란 | |
| 아름다운 도전 / 방갑남 | |
| 후원처 탐방 | 6~7 |
| 코아 베이커리 | |
| 상반기 활동사항 | 8~9 |
| 하반기 활동사항 | 10~11 |
| 어르신 초청 어울림 한마당 잔치 | 12~13 |
| 대상자 센터방문 운동치료 터치터치 | 14~15 |
| 영화관람 나들이 - 롯데 시네마 | 16~17 |
| 사업소개 - 건강유레카 | 18 |
| 가정봉사원 수기- 김미예 | 19 |
| 동정 | 20~21 |
| 예산보고 | 22 |
| 도움의 손길 - 가족소개 | 23 |
| 모집 | 24 |



표지설명

롯데 시네마에서 영화관람을 마치고 관장님과 이르신들과 함께 찍은 사진

가정봉사원 / 파 / 견 / 선 / 터



기적으로

모든 만남을



김영란/가사, 간병 도우미

“

세상을 보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한 가지는 모든 만남을 우연으로 보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모든 만남을 기적으로 보는 것이다.

”

로또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 참여하면서 여명가정봉사원 파견센터와 연을 맺게 되었다.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정봉사원을 파견하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여명 가족들의 연령층이 2~30대라는 점이 작은 충격으로 다가왔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낮은 이들, 즉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가족이 없는 사람.....

이들이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누어야 할 짐이라는 것을 깨닫기에는 너무 요원한 나이들인데.. 이들의 체계적이고 헌신적인 참다운 봉사의 장을 보면서 나 자신의 인생의 곡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자식들에게는 늘 '매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주위의 모든 이들을 사랑하려고 애써라' 하고 당부하면서 정작 나는 어떠했는가?

내가 만들어 놓은 틀에 갇혀 주어진 삶이 벅차다는 이유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갖지 못한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팠다.

비록 시작은 작고 약할지라도 이웃에 봉사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욕심을 버리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소명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홍 xx 할머니, 양 xx 할머니. 박 xx 할머니..등 나와의 주 1회 만남을 주중 내내 기다렸다는 지독히도 외로우신 독거노인 분들... 가슴깊이 뿌리박힌 편견을 느끼며 살아가는 중증장애인들... 이들의 걸모습을 보기 이전에 인간이라는 공통점을 주지하며 그들을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감사하며 기쁘게 살고 싶다.

혹자는 "세상을 보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한 가지는 모든 만남을 우연으로 보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모든 만남을 기적으로 보는 것이다."라고 했다.

여명 가정 봉사원 파견센터의 가족들. 나의 대상자 어르신들. 앞으로 나와 만날 모든 이들.

이 슬한 만남이 살아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기적으로 널리 널리 세상 속으로

퍼져나가 좀 더 많은 이들이 불우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아름다운 도전

찌는 듯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월의 끝자락..

가만히 앉아 있어도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땀방울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현장에서 일하다 복지사 선생님께서 한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일하는 소감을 글로 표현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순간의 일이라 "그러마"라고 대답은 했지만 머리속이 복잡하고 난감했습니다. 글쓰는 재주라곤 없는데 더욱 그러했습니다. 허나 다짐했습니다. 그냥 제 마음을 담자는 생각에 부족한 줄필이나마 펜을 들었으니 이해하고 봐주십시오..

저는 사실 가정형편이 어려워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로 간병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업주부의 틀에서 벗어나 일을 한다는게 쉽진 않았지만 달리 선택할 길이 없었습니다.

처음 일에 뛰어들고보니 적응하기가 여간 힘든일이 아니었습니다. 낯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열심히 하기위해 최선을 다하여도 서로 공감하지 못할때 정말 마음이 슬펐습니다.

무엇보다 우선 사람을 만나 나의 존재를 인식시켜야 한다는 사실이 말이 아닌 행동이기 때문에 한집 한집 방문할때마다 마음은 항상 긴장되고 나를 거부하진 않을가 하는 불안감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누가보든 안보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최고의 일이라 여기고 수호자 한분 한분을 내가족, 내 부모님이상으로 생각하고 정말 배려하는 마음과 친절,사랑,겸손한 자세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더불어 살수있는 바탕을 마련해주신 로또 관계자 여러분께 진정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여명식구로 인정해준 우리 여명센타 실무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방 갑 남

“

누가 보든 안보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가장 가치있는 최고의 일이라 여기고 정말 배려하는 마음과 친절,사랑,겸손한 자세로 노력하였습니다.

”

행복을 나누는 소중함



코아 베이커리 / 사장님부부

뜨거운 햇빛에 자연스레 옷을 벗듯 이분들의 사랑과 정성을 만나 뵈 때에는 우리들의 굳은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자연스레 스며들곤 합니다. 어르신들의 생신 상을 멋진 케익으로 장식해 주시고 활력소까지 찾게 해 주시는 코아 베이커리를 찾았습니다. 사장님 부부 두 분 다 몸이 조금 불편하시지만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는 마음만큼은 살아있고 건강하답니다. 케익을 주실 때마다 좀 더 좀 더 부드러운 크림 속에 과일들을 듬뿍 올려 주시며 풍성히 축하해 주라는 인사를 잊지 않으시는 친절한 사장님과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노인 분들에게 언제부터 관심을 갖으셨나요?

제빵을 배우고 여러 곳에서 실력을 쌓은 다음 조그만 가게라도 내 사업장을 갖게 된 기쁨이 너무 컸습니다. 이 사업장에서 어떤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빵이 다소 친숙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은 또 누굴까 하는 고민 속에 노인 분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 나누는 삶을 사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둘 다 건강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자라온 환경 또한 매우 열악하여 힘들게 살아 왔습니다. 다행히 좋은 사람 만나 가정을 갖게 되었고 경제적인 상황도 자리를 잡아 이 행복을 이제는 우리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돌려드리려는 생각을 할 때 부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 본 센터를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활동이 제한적이고 시간도 쉽게 낼 수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봉사가 무엇일까 찾던 중에 어르신들의 생신을 매일 매일 케익을 들고 축하를 하는 여명 가정봉사원 파견센터가 우리의 목적과 상황에 맞아 흥쾌히 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 평소 사회복지에 대한 생각과 앞으로의 바람은 어떠신가요?

이번 기회를 통해 평소 못해왔던 이웃돕기를 함께하게 되어 정말 보람되고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처하고 갖고 있는 기술로 도울 수 있는 방안도 있구나" 하는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부족한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사회가 갈수록 문화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빵도 어떻게 보면 음식문화의 부분인데 더 개발하고 발전하여 사회에 많이 환원하기를 두 손 모아 소망 합니다.



힘드시겠지만 수고 많이 하라며 직접 만든 자랑스런 빵들을 간식으로 꼭 들려드립니다.
맛있게 잘 먹고 어르신들의 생신 상차리기에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건강하시고 이렇게 훌륭한 노력으로 사업 더욱 번창하시길 외치며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때일 갓구운빵!

코아 베이커리

T.286-8855

대상자 서비스 지원 활동



노인 가사, 간병 도우미 사업시작 (1월 18일)

로도북권에서 사회 환원을 위한 복지기금을 외롭게 지내시는 독거노인들과 중증 장애인들의 삶을 돌보아 주는데 쓰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센터에도 6명의 가사, 간병 도우미가 배치되어 가정방문활동을 통한 가사, 간병 및 일반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유익한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설날 물품 지원 (2월 5일)

어르신과 장애인 103명 94가정에 사랑과 정성이 가득 담긴 명절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명절에 빠질 수 없는 모듬전유어와 잡채, 떡 튀김, 참치조림, 햄 볶음 조림, 만두, 보리멸 양념구이 등 다양하고 푸짐한 음식들을 제공 해 드렸습니다. 특히 여러 날 손질이 많이 필요한 재료 손질에 기쁨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자원봉사자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더욱 가족처럼 위로하며 하나 되는 아름다움이 유지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르신들! 건강하세요!



호박죽 나눔 (3월 21-26일)

아직 쌀쌀한 기운이 맴도는 환절기에 어르신들과 건강이 약한 장애인들의 영양을 위해 호박죽을 전 대상자들과 나누는 축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꼭 옛날 맛이라며 입 맛 없을 때 너무 잘 드셨다고" 감격하시는 모습을 통해 작은 관심과 노력을 큰 선물로 반겨주시는 마음에 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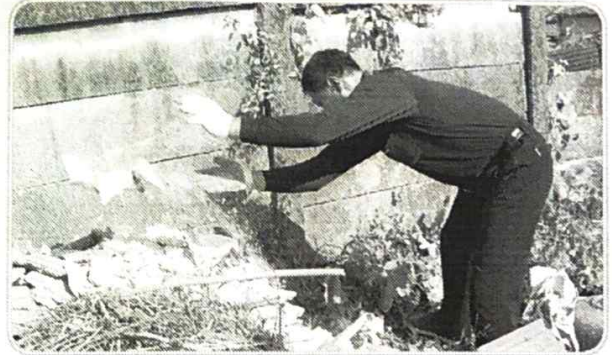
자원봉사자 단합대회 (4월 5일)

완연한 봄을 자랑하는 따사로운 봄날에 그동안 쉬지 않고 달려 온 봉사자들에게 용기를 북돋는 단합대회를 구례 산수유 마을과 보성 녹차밭으로 다녀왔습니다. 평소 쉽게 갈 수 없는 명소를 구경시켜 주어 고맙다며 모든 자원봉사자들이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늘의 즐거움이 계속해서 대상자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로 다가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모두 모두 파이팅!

센터의 주요활동

● 대청소 (4월 23일)

여명교회 중, 고등부 9명과 서전주 중학교 3명이 장애인 오두영씨 집을 찾아 대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래전 질병으로 인한 자녀들과의 이별로 아이들을 좋아 하시어 무척이나 반기시는 그리움 속에 가슴이 뭉클 했습니다. 늘 저희들이 함께하고 있으니 힘내세요! 오전 내내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도록 청소하고 이불 빨래하며 재밌게 봉사하는 아이들의 열심에 박수를 보내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어르신 초청잔치 (4월 30일)

해마다 센터 마당의 철쭉이 반발 할 때 찾아오는 한마당 잔치가 이번에도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어르신과 봉사자 외 잔치를 빛내기 위해 방문한 공연 팀과 내빈을 포함해 300명정도가 마당을 가득 채워 활기차고 신명나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많은 후원의 손길과 자원봉사로 협력해 주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멋진 공연과 맛갈스러운 점심과 어울림 한마당 잔치를 통해 흐르는 어르신들의 행복한 미소가 우리들의 힘겨운 노고를 녹여 주셨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



● 생신축하 (연중)

중화산동 김재성 어르신 외 30명의 어르신들의 생신을 매일 이른 아침 찾아가 촛불을 밝히고 축하 해 드렸습니다. 해마다 방문하는 축하이지만 매번 감동의 눈물에 쓸쓸한 삶을 감추시지 못하는 모습에 저희는 마음이 아파옵니다. 오래 오래 건강히 지내시어 저희들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힘내세요!



대상자 서비스 지원 활동

● 실습지도 (7~8월)

7,8월 두 차례에 걸쳐 원광보건대2,원광대1,한일장신대1명의 실습지도가 있었습니다. 무더운 더위만큼이나마 그동안 열심히 쌓아둔 학문을 현장에서 마음껏 펼쳐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서투른 일과 어르신들과 관계하기에 다소 짧은 시간이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충실히 실습에 임해주어 감사합니다. 더욱 지식과 실력을 겸비하여 준비된 사회복지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파이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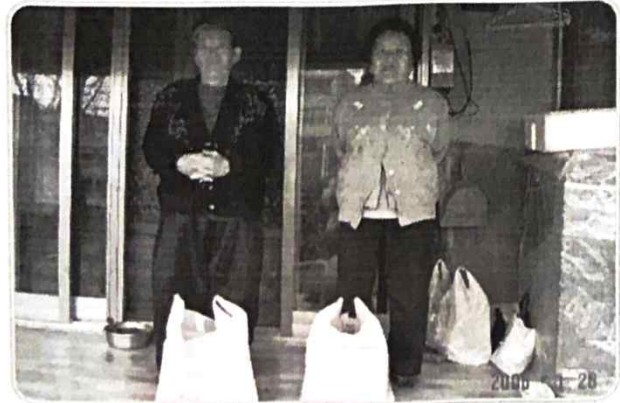
● 운동치료 교실 실시 (8월 9-13일)

작년에 이어 이번 여름에도 더위에 지쳐 나른한 어르신들의 몸을 만져 드리는 '대상자 센터방문 운동치료 교실'을 실시하였습니다. 봉사자들의 손끝마다 전해지는 사랑과 속까지 시원해지는 냉면까지 드시고 특별히 웅장함을 뽐내는 도청 신청사를 방문하여 전라북도 도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신나는 하루였습니다. 모두 건강히 일과를 마칠 수 있도록 질서를 지켜주신 어르신들과 도움을 주신 봉사자들에게도 감사사를 전합니다. 어르신들 오래 오래 건강하세요!



● 봉사자 대청소의 날 (9월 19일, 24일)

어르신들에게 기쁨을 전해드리기 위해 상산고등학교34명과 여명교회 중,고등부10명의 고사리 손들이 합창이 열렸습니다. 그저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손자, 손녀들 왔다고 반기시는 어르신들의 기다림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의 기운에 어르신들 댁에 활기가 가득 넘쳤습니다. 청소, 빨래, 이불빨래, 주방정리, 노래부르기, 는 물론 시각장애 가정 아이 돌보기, 시각장애 어르신 장보기 동행, 한글공부까지 척척 해내는 모습이 대견 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추석물품 전달 (9월 15,16일)

'풍성한 한가위' 추석을 본 센터에서도 풍성하게 어르신, 장애인, 기타 저소득 가정 132가정에 명절물품을 지원 하였습니다. 한우와 돼지고기, 닭고기, 조기, 김 송편, 음료수와 생필품, 남자 은이온 양말과 속옷 세트 까지 그리고 음식조리가 불편한 장애인 도시락 대상자에게는 전유어, 잡채, 소고기미역국, 과일, 구운 김, 음료를 봉사자들이 정성껏 준비하여 제공 했습니다. 우리들의 작은 마음이 잘 전달되어 외롭지 않고 따뜻한 명절이 되었기를 소원 합니다.

센터의 주요활동

● 후원 물품(라디오) 전달 (9월 27일)

효자동에 거주하시는 이XX 어르신에게 효자동 전자제품 영업소 하이마트에서 라디오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매일 매일 라디오를 친구 삼아 지내시는 할머니 라디오가 오래 사용 해 잦은 고장으로 교체 하였습니다. 새 친구가 생기셨다며 너무 반가워하시는 미소에 힘이 되어 드려 저희가 더욱 기뻐했습니다. 라디오를 통해 세상 구경을 재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이마트 지점장님 감사합니다!



● 대상자 집고치기 (10월 13일, 22일)

효자동에 사시는 이XX 어르신 댁이 전주 완산 자활후견기관을 통해 멋지게 새 단장을 하였습니다. 보일러, 수도 공사와 장판교체 및 도배를 하여 월동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이처럼 고마워 어쩔 줄 몰라 하시며 혼자 사는 노인에게 얼마나 큰 도움인지.. 눈가에 눈물이 그칠 줄 모릅니다. 따뜻하게 겨울 잘 보내세요!

그리고 또 한 분 이XX 어르신 댁은 따뜻한 자원봉사자 모임인 따, 모에서 대문, 담장, 마당, 방안 방수 공사를 해 드렸습니다. 큰 걱정이 해결 되어 이전 편히 잘 수 있겠다며 마냥 싱글벙글 이십니다. 도움을 주신 기관들에게 다시 감사를 전하며 계속 어르신들의 편리하고 깨끗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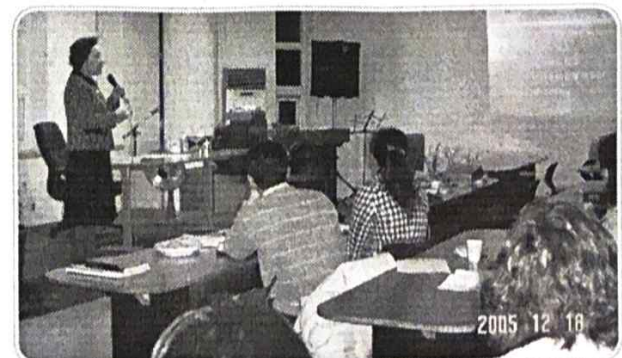
● 대상자 소그룹 나들이 (10월 24-27일)

짜잔!! 어르신들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문화인의 자긍심을 심어 드리려고 영화 관람 나들이를 계획 했습니다. 전주 서신동 롯데 시네마 관장님의 지원으로 백화점 영화관에서 100여명의 대상자와 봉사자들이 3일간 나누워 영화 관람 후 중화산동 한일관에서 시원한 황태 콩나물 국밥을 대접 해 드렸습니다.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젊어지는 것 같다 시며 너무 좋아 하시는 어르신들의 미담들이 준비한 저희들과 함께 해 준 분들에게 큰 성과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늘 저희들이 옆에 있으니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 자원봉사자 교육 (12월 18일)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시고 어르신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었던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북돋고 실력 향상을 위한 보수 교육을 마쳤습니다. 강사로는 전주 전 예수병원 류금주 간호부장님께서 '말기 암환자 케어법'에 대해서 열강 해 주셨습니다. 죽음을 가까이 하고 있는 노인들의 이해와 질병 대처법에 대해서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강사 분에게 감사드리고 지속한 자원봉사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 합니다. 한 해 동안 물심양면으로 봉사 해 주신 봉사자분들에게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2005 어르신 초청 어울림 한마당 잔치 이모 저모

2005년 4월 30일 토요일!!

어둑어둑한 날씨가 심상치 않은 어느 봄날... 드디어 2005년 어르신 초청 어울림 한마당 잔치가 본 센터 앞마당에서 열렸습니다. 약 120여분의 어르신들과 88 분의 봉사자들, 10여 분의 내빈들, 어르신들을 기쁘게 해줄 52명의 공연 팀 이 하나가 되어 즐겁고 재밌는 풍성한 잔치였습니다.

♣ 행사 전 준비

올해는 잔치에 참석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어르신들께 잔치 때 드실 음식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음식을 받은 어르신들 마다 "잔치 준비하느라 바쁠 텐데 나까지 신경써주니너무 고맙네..." 하시며 눈물이 글썽하셨습니다.

♣ 행사 준비

드디어 잔치의 문은 열렸습니다. 매년 5월 1일에 했던 행사가 올해는 일요일이다 보니 하루 앞당겨 토요일에 하다 보니 오후에 하는 새로운 날을 준비 했습니다. 4월 30일 이른 아침부터 봉사자들의 발걸과 손길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음향설치, 무대장식에 사용 되어질 풍선불기, 어르신들이맛있게 드실 음식을 만드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서서히 잔치의 서막이 오릅니다. 짹짹 ~~~~~

♣ 행사시작의 팡파레

오후 2시 먼저 1부 예배에는 전주 성산교회 당회장목사님 이신 우인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요, 여명교회 청년부의 특송에 이어 내빈들의 축사와 격려사가 있었습니다. 전주대 풍물패 개뿔쇠의 길놀이로 2부의 축하공연이 시작 되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각설이패거리들의 공연과 사회로 2부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영생고 웨카이나 의 댄스, 남향초등학교 풍물팀의 사물놀이, 김정래선생님과 노송동 문화의 집 한국무용반의 한국무용. ... 축하공연은 정말 멋졌습니다.

준비하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축하공연을 마치고 어르신들과 같이 하려던 민속놀이나 레크리에이션을 하려고 있는데 우리 잔치를 시샘하듯 봄비가 내리기 시작 해 놀이마당은 못하고 노래자랑을 했습니다.



이 노래자랑을 위해 갈고 닦은 노래실력을 뽐내면서 15분의 어르신들이 열창하는 모습들과 비를 맞으며 백댄서를 해준 우산 소녀들.... 정말정말 수고 하셨어요.. 다행히 감기든 분들이 없어 다행이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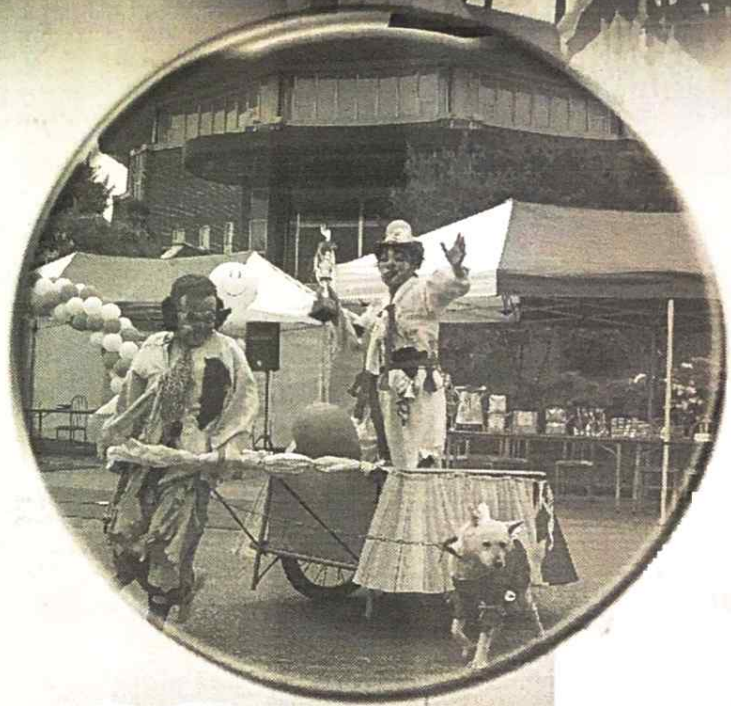
열창한 어르신들에게 상품을 한아름 안겨드리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3부 음식나눔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너나 나나 없이 손길과 발길이 바빠진 봉사자들... 부딪침없이 어르신들에게 맛있는 음식들이 신속히 서빙 되기 시작했습니다. 소고기미역국, 홍어회무침, 편육, 겉저리, 전(명태, 나물), 떡, 음료수, 아이스크림 등 이른 저녁을 드신 어르신들의 모습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식사시간에는 우산소녀들과 각설이패거리들의 댄스공연들로 보다 어르신들이 영양만점, 사랑만점의 식사를 하셨답니다. 어르신들!! 정말 맛있죠!! 건강하세요!!

❖ 행사 후 대단원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자원봉사자였습니다. 어르신들의 귀가 후 재빠른 봉사자들의 손길이 언제 행사를 했나 할 정도 깨끗하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소리 없이 물신양면으로 협조해주신 자원봉사자분들과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모두 파이팅입니다!!



'어르신들의 약화된 전신 관절 운동을 위한 대상자 센터방문'
함께해요
터치! 터치! 운동치료교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우리 어르신들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봉사자들의 손끝을 통한 관절 풀기 운동을 기다리시는 어르신들을 센터에 모셔 운동치료 교실을 열었습니다.

다양한 의료기와 관절운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온 몸을 만져 드리는 유익한 시간과 맛있는 식사로 어르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완공된 도청 신청사 방문도 함께하여 어르신들에게 문화체험의 장을 소개해 드렸답니다. 동참해 주신 모든 봉사자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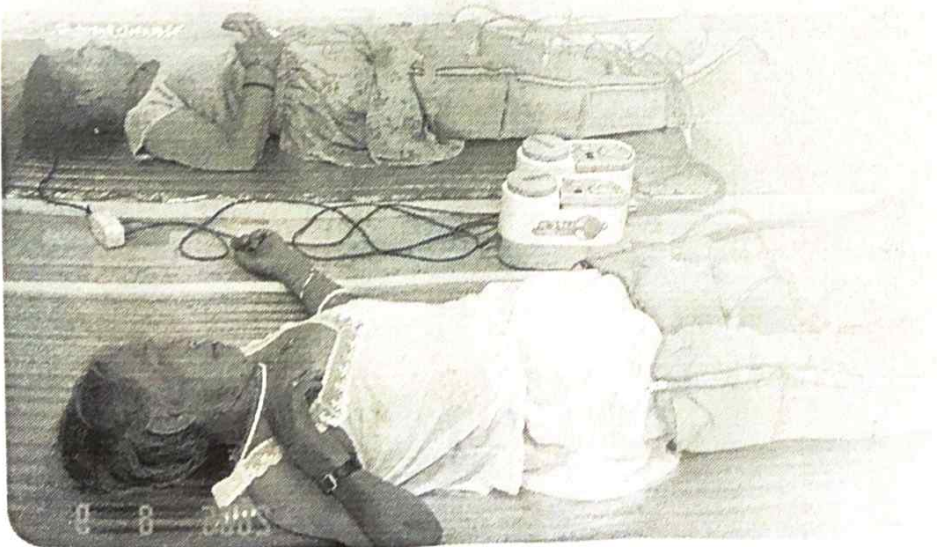
◆ 행사개요 ◆

일 시 : 2005년 8월 9일에서 13일까지(5일간)

장 소 : 본 센터

참 석 자 : 어르신 50명, 봉사자 55명

프로그램 : 의료기체험, 운동치료, 점심식사제공, 도청 신청사 방문





영화 관람



영화 관람

옛날 옛적 영사기로 흑백 화면을 즐기셨던 때를 회상하고 외로움을 달래드리는 가슴 따뜻한 선물을 선사해 드리기 위해 영화관람 나들이를 롯데 시네마로 떠났습니다. 어르신들 모두 멋지게 단장하시고 나오신 모습에 얼마나 설레고 기다림이 컸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화를 재밌게 보고 중화산동 한일관 어은터널점에서 시원한 황태콩나물국까지 드시고 신나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후원 해 주신 롯데 시네마관장님과 한일관 어은터널점 사장님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 행사개요 ◆

- 일 시 : 2005년 10월 24-27까지(4일간)
- 장 소 : 전주 롯데 백화점 롯데시네마, 한일관 어은터널점
- 프로그램 : 영화관람(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
점심식사(간식제공), 사진촬영
- 참석인원 : 어르신 100명, 봉사자 30명

어르신들의 테마나들이





찾아가는 사랑의 무료 의료 서비스 차

“유레카” 출동 !!!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곳곳마다 각종 질병으로 고
민하며 병원을 찾는 노인들의 숫자가 급증하고 거동이 불편
한 노인들을 위한 방문간호 사업도 활발해지고는 있으나 빈곤 노인
들의 갈증은 상대적으로 더해가는 현실입니다. 이에 저희 기관은
2001년도부터 공동모금회 지원으로 무료방문간호서비스사업(“몸
사랑 마음사랑”)실시를 시작으로 방문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여 어
르신들의 굳어진 관절을 주무르기, 안마 등을 통해 운동치료 서비
스(“함께해요 터치터치”)사업을 실시하면서 저희 어르신들을 방문
하면 주위에 모여드는 동네 어르신들의 욕구를 쉽게 알게 되어 사
랑의 공동모금회 지원으로 그동안 마련된 장비들을 차에 싣고 경노
당과 마을 회관 등 어르신들이 모여 있는 곳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활약을 기대합니다.

◆ 방문 일정 ◆

일 시: 매주 월요일

장 소: 서곡경로당, 서곡여성경로당, 서곡마을회관, 효자4동
호암기령양로당, 효자4동 신주리양로당, 중화산동 사
거리양로당, 효자4동 속거양로당

프로그램: 건강체크, 의료기 체험, 관절 운동, 간식 제공

참석인원: 어르신 약100명, 간호사3명, 봉사자10명



마음을 '따뜻한 만남'

안녕하세요! 저는 예수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장동료를 통해서 재가노인 가정방문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어느덧 3여년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한 달에 한번정도 이곳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어서 재가 어르신들과 많이 친숙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가끔씩이라도 그분들을 만나는 날엔 맘이 설레고 기분이 좋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부모님보다도 유난히 할아버지를 더 좋아하고 잘 따랐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노인 분들을 볼 때면 우리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 잠시 시선을 고정하고 가만히 바라보게 되고 이분들에 대한 애뜻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재활병동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환자 대부분이 할아버지와 할머니이십니다. 그래서인지 노인 분들에 대한 남다른 친근감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주로 화요일에 봉사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날엔 이서와 서신동변두리일대 시골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시골의 그대로의 모습, 그리고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 등 자연의 아름다운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정말 행복한 날입니다. 방문할 때마다 마루에 나와 앉아 계시는 상림의 이○○ 할머니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떠날 때까지 계속 바라보며 인사하시는 할머니의 모습이 참으로 정겹습니다. 그리고 방문할 때마다 맛있는 간식으로 대접 해주시는 할머니들이 계시는데, 그중에서도 서곡에 이○○ 할머니께서 어느 날 한번은 아이스크림이 너무 차가울까봐 우리들이 오는 시간에 맞추어 미리 실온에 내놓고 기다리셨다며 건네주셨는데, 받아든 아이스크림은 거의 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바탕을 웃으면서 녹아내린 아이스크림을 먹었고, 우리 봉사자들은 할머니의 따뜻한 사랑에 마음이 녹아져 내렸습니다.

이처럼 봉사자들이 방문 오는 날이면 잊지 않고 아침부터 기다리고 계시다가 반갑게 맞아주시는 할머니들이 계시기에 더욱더 힘이 나고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젊은 사람은 없고 할머니들만 덩그러니 남겨진 마을에서, 때때로 할머니들은 서로 시기하고 의심하고 다투기도 하시지만, 막상 어려운 일이 생길 때면 없어서는 안 될 정말 필요한 이웃이 되어 서로를 의지하고 알콩달콩 살아가시는 모습들이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서로가 외로운 처지에 있는 이분들은 앞에서는 이웃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아실 겁니다... 서로 오래오래 사시고 든든한 빛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인 간호에 꿈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이 재가노인 봉사활동은, 비전을 향한 밑거름이 되는 일인 것 같아 더욱 귀하게 느껴집니다.

아주 가끔 참여하는 미약한 봉사이지만 이 귀한 일에 동참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도 기회가 될 때까지 계속 봉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김미예

예수병원 재활병동 간호사



++ 센터 및 직원 동정

- 전주시 사회복지과에서 디지털 카메라 1점 후원받음(1월 17일)
- 전 대상자에게 영양죽(호박죽)을 전달 함(3월 21일-26일)
- 중화산2동 자치회 지원으로 중화산 2동 거주 대상자 16분께 쌀 10kg씩 전달 함(4월11-15일)
- 어르신 초청 어울림 한마당 잔치 행사 미참석 어르신들께 음식 전달 함(4월 29일)
- 전주 공업전문대학 축제 전통 혼례식에 본 대상자 37명 참석 함(5월 9일)
- 제3회 임실에서 열린 전북 재가노인초청 효도 큰 잔치에 어르신과 봉사자 80명이 참석 함(5월 20일)
- 전주 진북동 동국 해성아파트 경로잔치를 주관 함(6월 25일)
- 원광 보건 대학2명과 원광대학교 1명, 한일 장신대학 1명 실습지도 함(7,8월)
- 제6회 사회복지의날 기념 체육대회(실내체육관)에 참석 함
- 추석을 맞아 전 대상자에게 추석 물품 전달 함(9월 15일)
- 한재협 전북지회 주최 세미나 참석 : 소리 문화의 전당 국제회의실(10월 21일)
- 직원 아유회로 내장산 등반을 다녀 옴(11월 7일)
- 전재협 주최 독거노인 돕기 일대일 결연 캠페인에 참석 함(12월 2일)
- 공동 모금회 지원으로 대상자 24분에게 쌀20kg과 김치10kg을 지원 함(12월 16일)
- 전주시 종합 자원봉사센터 연결로 대상자 5분에게 연탄을 지원 함(12월 16,1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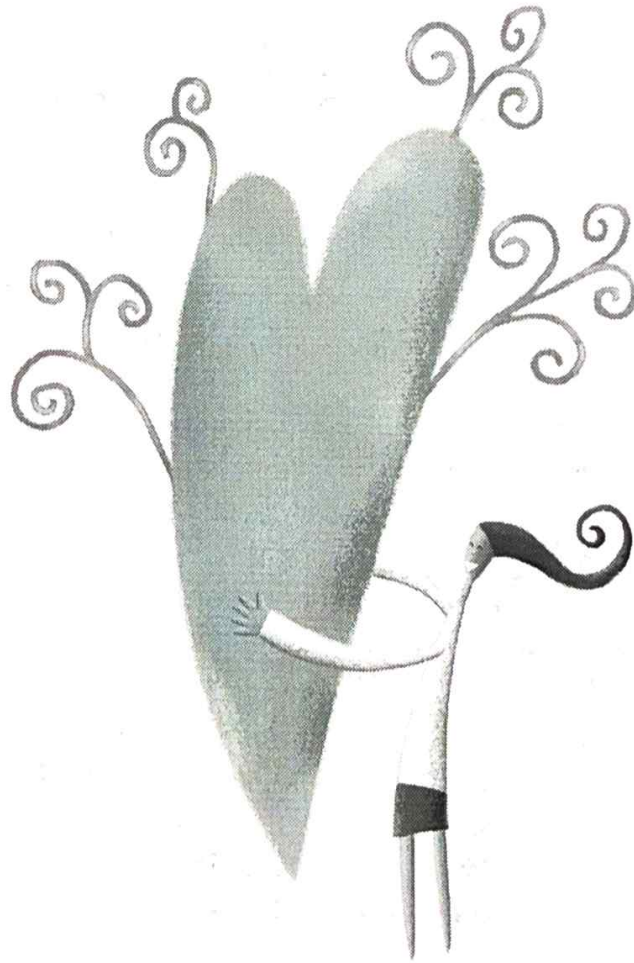
++ 대상자 동정

- 종결 대상자
유춘자,오요순,윤복순,신지순,이귀순,임복순,조순애,양정자,이향희
- 신규 대상자
배판례,김수덕,염사준,고광국,윤복례,박위덕,박경래,김복순,김연금,이연숙,박정순,박갑례,고은길,설순금,박금순
 - 전주시 지원으로 경로 목욕권 400매를 지원받아 대상자 전원에게 지급 함.
 - 효자4동 이영숙 어르신께 효자동 하이마트에서 라디오 지원 함(9월 22일)
 - 효자4동 이연숙 어르신 맥을 전주 자활후견기관과 연결 하여 보일러 공사, 장판교체 및 도배, 수도공사 실시함(10월 13일)
 - 효자4동 이영숙 어르신 맥을 따.자.모와 연결하여 대문, 담장, 마당, 방안 방수 공사 실시 함.
 - 장애인 도시락 대상자 오두영님과 이옥례님은 덕진구청에 연결하여 휠체어 지원 받음.

++ 대상자 동정

● 봉사자 동정

- 로또 복권 후원으로 노인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이 시작되어 본 센터에 6명 배치 됨.
- 여명교회 중고등부 봉사팀이 도시락 대상자 덕진동에 오두영님, 박동안, 김이순, 어르신 대청소와 일상생활 도우미 봉사 실시 함.
- 전주 서전주 중학교 고귀례외 2명이 가정방문 봉사에 참여 함.
- 전주 인후중 2명과 온고을중3명이 봉사활동 다녀감.
- 윤미래 봉사자가 김삼례,조정순,이영숙,오복례,오분례,김계순 어르신 이.미용 서비스 실시 함.
- 조인심 봉사자가 김삼례, 최순화, 박순례, 오분례, 김계순 어르신 이.미용 서비스 실시함.
- 전주 특목고 상산 고등학교 학생 34명이 어르신 6가정에 배치되어 가정방문 봉사 활동 함.
- 가사,간병 도우미 체육대회에 도우미 전원 6명이 참석 함.
- '말기 암 환자 케어 법' 이란 주제로 류금주 예수병원 전 간호부장님의 강의로 해님이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 함.



2005년도 세입·세출현황

◆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

| 세 입 | | | 세 출 | | |
|-----|-------|-------------|-------|-------|-------------|
| 관 | 항 | 금 액 | 관 | 항 | 금 액 |
| 보조금 | 국고보조금 | 108,451,000 | 사무비 | 인건비 | 115,765,203 |
| | 기타보조금 | 11,760,000 | | 업무추진비 | 220,700 |
| 후원금 | 후원금 | 7,715,644 | | 운영비 | 11,087,210 |
| 전입금 | 전입금 | 20,807,693 | 재산조성비 | 시설비 | 295,000 |
| 잡수입 | 잡수입 | 215,460 | 사업비 | 사업비 | 20,730,670 |
| 이월금 | 이월금 | 7,985,923 | 이월금 | 이월금 | 8,836,937 |
| 합 계 | | 156,935,720 | 합 계 | | 156,935,720 |

◆ 도시락배달 사업 ◆

| 세 입 | | | 세 출 | | |
|-----|------|------------|-----|-----|------------|
| 관 | 항 | 금액 | 관 | 항 | 금액 |
| 보조금 | 시보조금 | 23,000,000 | 사업비 | 주식비 | 4,172,000 |
| | 잡수입 | 3,382 | | 부식비 | 18,829,300 |
| | | | | 잡지출 | 2,082 |
| 합 계 | | 23,003,382 | 합 계 | | 23,003,382 |

여명가정봉사원 파견센터의 가족

후원 가족 (2005. 1 - 2005. 12)

...물자후원

강원봉, 고정배, 고찬배, 고행석, 김동희, 김옥자, 김용안, 김윤일, 김임수, 김진산, 김정숙, 김정숙2, 김창주, 김현석, 노경철, 나효옥, 노영숙, 노인숙, 박노진, 박은영, 박봉기, 소점례, 신순미, 양수진, 양유순, 유 미, 유정자, 이금자, 이석봉, 이석연, 이세라, 이점례, 이정우, 임현주, 정숙희, 정순경, 조옥선, 진오범, 최봉남, 최정애, 형남만, 형복희, 여명교회제2청년부, 이마트전주점, 진보쇼핑, 정영란, 차상희, 차상미, 우강숙, 변길임, 라병수, 임은희, 마트-유, 푸르덴셜 생명보험(주) 호남지부, 까르푸전주점, 차진석, 조병수, 심요섭, 박지숙, 임은희, 대우서비스 전주

...물품후원

김종락, 전중세, 강인농장-계란, 윤숙자-생필품, 청국장, 국민소금, 동일농장, 전주마트정육점(나라축산), 전주마트제과점, 이마트 전주지점, 진북동마트-유, 대주상사, 제일제당 중화산점, 봉유통, 송천동 건어물시장(8번, 70번, 90번), 전주 승현특판(풀무원), 전주푸드뱅크, (주)하선정종합식품 전북총판, 진미식품, 청수골식품, 칠칠수산, 풍년제과(중화산동), 하나로떡집, 하림전주대리점, 형제유통, 효자식품, 호남냉장, 뚜레쥬르덕진점, 코아베이커리

자원봉사자 가족

김기현, 김길순, 김미예, 김성희, 김아영, 김영란1, 김영란2, 김옥자, 김요셉, 김용림, 김윤일, 김은주, 김종문, 김현아, 노승주, 노영숙, 노정숙, 라병수, 박래승, 박은영, 박지숙, 백경미, 서명례, 송연태, 심요섭, 양은정, 양유순, 양은인, 양인순, 양효남, 윤미래, 유인성, 이미경, 이미연, 이병재, 이보라, 이소영, 이수영, 이승환, 임은희, 장옥심, 장한나, 정순경, 정숙희, 정영란, 조계석, 조윤주, 조인심, 주미애, 진성택, 성종현, 천홍지, 채영병, 최규일, 최명순, 최영순, 최 현, 하상국

여명교회 중고등부- 진영준, 진소민, 백명주, 백승훈, 심재욱, 임슬기, 양재영, 강수지, 고귀례

전주 온고을중학교- 함소라, 이정문, 김아영, 이혜원, 형다운,

전주 상산 고등학교- 백수진, 조하혜, 김수연, 최지은, 박경률, 진단비, 최정인, 최주영, 장지연, 권혜인, 정현경, 주현희, 박지희, 이효나, 양수진, 오예진, 오소혜, 강희정, 이순공, 김단비, 김규운, 김바위손, 최수민, 김승우, 김관우, 이병훈, 허 준, 황호연, 최세희, 최 혜, 문명진, 하진규, 이병훈, 이진호, 박병진, 김진홍, 배일섭, 이수종, 이성배, 권기범

*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흑 기록상 착오로 누락된 분이 있으시면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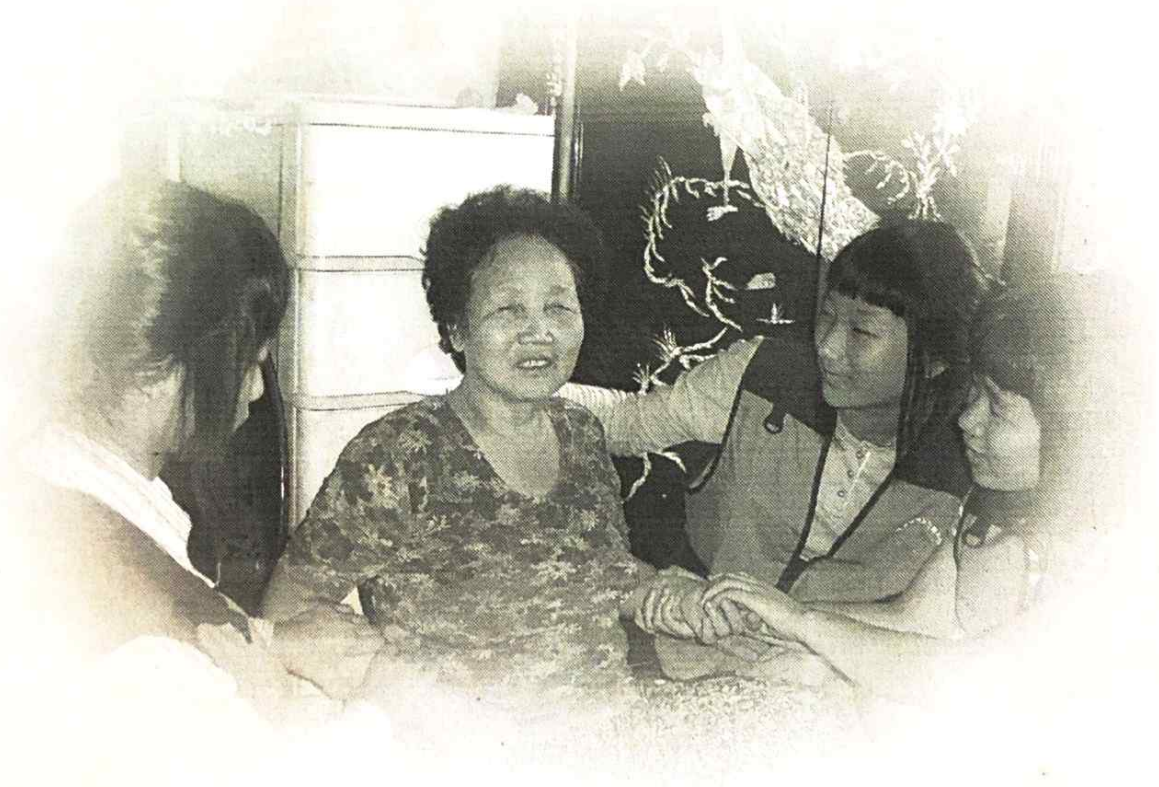
예금주 : 여명가정봉사원파견센터 전북은행 510-13-0310192 국민은행 501-01-0601-523
우체국 400010-01-011708 농협 658-01-002798

여 명 가 정 봉 사 원 파 견 센 터

모

집

우리의 작은 사랑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 |
|----------------|---|
| 가정봉사원 | 말벗, 세탁, 설거지, 청소, 식사보조, 목욕, 병원동행, 행정업무대행, 시장보기, 책·신문읽어 주기등 |
| 치량봉사자 | 장애인 도시락 및 밀반찬 배달, 어르신 병원동행, 방문간호서비스, 후원물품운반 등 |
| 후원자 (현금·현물) | 식품류, 가전제품 등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등 결연후원 |
| 기 타 | 방문간호사, 의료봉사, 이·미용, 주택보수, 방역·월동준비(보일러) 등 |

여 · 명 · 가 · 정 · 봉 · 사 · 원 · 파 · 전 · 센 · 터

TEL. (063) 223, 224-5673 / FAX. (063) 224-6896/e-mail : careym@hanmail.net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제작